

정답표

번호	정답	번호	정답	번호	정답	번호	정답
1	④	6	①	11	③	16	⑤
2	③	7	①	12	⑤	17	③
3	①	8	②	13	③	18	②
4	④	9	④	14	②	19	⑤
5	②	10	④	15	⑤	20	④

Review

총평

개념적으로 깊이있는 선지를 다수 출제하면서, 학생들에게 섬세한 개념적 이해를 요구하였던 시험이며, 은은하게 부활한 퍼즐 문항과 6평에 비해 어려워진 도표 문항까지 가미되어 상위권을 제외한 학생들에게는 까다로웠을 시험으로 느껴집니다.

예상 등급컷

1등급 47점, 2등급 44점, 3등급 40점

해설지 구성 소개

본 해설지는 [빠른 정답], [자료 분석], [정답 풀이], [오답 풀이], [Eye Catch]의 최대 5가지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빠른 정답]: 해당 문항의 정답입니다.

[자료 분석]: 해당 문항의 제시된 자료에서 얻어갈 수 있는 정보에 대해 분석하고 정리하는 단락입니다. 자료 정리보다 선지와와의 비교가 더 중요한 문항의 경우 생략될 수 있습니다.

[정답 풀이]: 정답 선지가 정답 선지인 이유에 대해 해설하는 단락입니다.

[오답 풀이]: 오답 선지가 오답 선지인 이유에 대해 해설하는 단락입니다.

[Eye Catch]: 본 해설지의 핵심 컨텐츠로, 알았다면 해당 문항을 푸는 데 도움이 되었을 팁과 해당 문항에서 새롭게 얻어갈 수 있는 교훈을 바탕으로 수험생들의 관점(Eye)을 바로잡는(Catch) 단락입니다. 일부 평이한 문항의 경우에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출제 단위 및 유형

번호	출제 단위	유형	난이도
1	사회·문화 현상의 이해	사례	하
2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	사례	상
3	현대 사회의 문화 양상	퍼즐	중
4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사례	중
5	사회 변동과 사회 운동	사례	하
6	사회 구조와 이탈 행동	사례	하
7	사회 구조와 이탈 행동	사례	하
8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태도와 연구 윤리	사례	하
9	다양한 사회 불평등 현상	사례	중
10	다양한 사회 불평등 현상	도표	중
11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	사례	하
12	문화 변동의 양상과 대응	사례	중
13	다양한 사회 불평등 현상	사례	중
14	사회·문화 현상의 이해	사례	하
15	사회 복지와 복지 제도	도표	상
16	현대 사회의 문화 양상	사례	중
17	문화의 이해	퍼즐	중
18	사회 이동과 사회 계층 구조	도표	중
19	사회 변동과 사회 운동	사례	중
20	현대 사회의 변화와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	도표	상

1 사회·문화 현상의 이해

[빠른 정답] ④

[자료 분석]

㉠, ㉡은 자연 현상이고, ㉢, ㉣은 사회·문화 현상이다.

[정답 풀이]

④ 자연 현상은 사회·문화 현상과 달리 확실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오답 풀이]

① ㉠, ㉡은 모두 자연 현상이므로, '달리'를 통해 구분할 수 없다.

② 자연 현상은 사회·문화 현상과 달리 특수성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 현상은 자연 현상과 달리 특수성이 나타난다.

③ ㉢, ㉣은 모두 사회·문화 현상이므로, '달리'를 통해 구분할 수 없다.

⑤ ㉡, ㉢과 ㉠, ㉣은 모두 자연 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이 하나씩 섞여 있으므로, '달리'를 통해 구분할 수 없다.

[Eye Catch]

'자연 현상은 자연 현상과 달리'나, '사회·문화 현상은 사회·문화 현상과 달리'와 같은 표현은 반드시 오답 선지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러한 선지를 시험장에서 마주하게 된다면 뒷부분을 읽지 않고 오답 선지로 판단하는 것이 1번 문항부터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다.

2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

[빠른 정답] ③ (ㄴ, ㄷ)

[자료 분석]

갑은 질문지법을 통해, 을은 면접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정답 풀이]

ㄴ. ㉠은 갑의 연구에서 종속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에 해당하지만, 을의 연구에서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은 을의 연구에서 종속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은 질문지법, ㉣은 면접법을 통해 얻은 1차 자료이다. 질문지법과 면접법은 모두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자료 수집 방법이다.

[오답 풀이]

ㄱ. 갑의 가설에서의 연구 대상은 '반려견을 양육하는 사람'이므로, ㉠에서 독립 변수는 반려감 양육 경험의 유무가 아니다.

ㄹ. 을의 연구는 실험법이 아니다. 따라서 을의 연구에는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이 존재하지 않는다.

[Eye Catch]

6평과 마찬가지로, 양적 연구는 섬세한 개념적 이해와 제시문 독해력을 요구하는 문항이 출제되었으며, 특히 9평에서는 자료 수집 방법을 출제하지 않은 대신 ㄷ과 같은 선지를 통해 간접적으로 해당 단원을 출제하였다. 연구 방법이나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한 개념을 피상적으로만 학습하였거나 제시문을 발췌해서 읽었다면 ㄱ~ㄹ 모두 어렵게 느껴졌을 선지이므로, 수험생은 개념에 대한 철저한 학습을 바탕으로 제시문과 선지의 미시적인 부분까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훈련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문항이다.

3 현대 사회의 문화 양상

[빠른 정답] ①

[자료 분석]

한 사회의 구성원 대다수가 공유하는 문화는 주류 문화이다. 따라서 A는 주류 문화가 아니다.

한 사회에서 특정 지역의 문화는 하위문화에 해당한다. 따라서 C는 하위문화이다. A는 주류 문화가 아니므로 A는 반문화이고, B는 주류 문화이다.

[정답 풀이]

① 모든 반문화(A)는 하위문화(C)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② 주류 문화(B)는 한 사회 내에서 반문화(A)와 양립할 수 있다.

③ 반문화(A)와 하위문화(C)는 모두 주류 집단에게 일탈로 규정되기도 한다.

④ 주류 문화(B)와 하위문화(C)는 모두 사회 변화에 따라 반문화(A)가 되기도 한다.

⑤ 반문화(A)는 사회 전체의 동질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지 않는다.

[Eye Catch]

거짓인 진술과 참인 진술을 제시한 퍼즐 문항이다. 퍼즐 유형이 사실상 출제되지 않았던 6평과 달리, 9평에서는 퍼즐 문항을 출제하려고 하는 시도가 느껴지므로 학생들은 이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A와 C의 총합으로 B를 설명할 수 없다.'라는 질문은 반드시 참인 진술이라서 어떠한 정보도 학생들에게 제시하지 않지만, 주류 문화가 반문화와 하위문화의 총합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서 B는 주류문화가 될 수 없다는 진술로 이해했다면 문항을 푸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4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빠른 정답] ④ (ㄴ, ㄹ)

[자료 분석]

갑은 회사 회계 팀과 노동조합에 속해 있고, 을은 회사 복지 팀, 노동조합, 회사 내 사진 동호회에 속해 있다.

[정답 풀이]

ㄴ. 갑과 을은 모두 노동조합에 속해 있다.

ㄹ. 갑은 회사 회계팀에, 을은 회사 내 사진 동호회에 속해 있다.

[오답 풀이]

ㄱ. 자료에서 갑의 역할 갈등은 나타나 있지 않다.

ㄷ. 자료에서 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나타나 있지 않다.

[Eye Catch]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문항의 경우 6평에서는 드라마, 9평에서는 웹소설과 같이 기존 대비 낯선 방식으로 정보를 제시하려는 움직임이 느껴진다. 또한 22학년도 수능의 18번 문항처럼 을에 대해 소개하는 문단에서 갑이 노동조합에 속해 있다는 정보를 제시하였으므로, 수능에서도 이러한 출제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5 사회 변동과 사회 운동

[빠른 정답] ②

[자료 분석]

(가)는 순환론, (나)는 진화론이다.

[정답 풀이]

② 진화론은 사회 변동을 사회 발전과 동일시한다.

[오답 풀이]

① 순환론은 서구 중심의 사고라는 비판을 받지 않는다.

③ 순환론은 미래의 사회 변동에 대한 역동적 대응이 용이하지 않다.

④ 진화론은 운명론적 관점에서 사회 변동을 설명하지 않는다.

⑤ 순환론은 단기적 사회 변동을 설명하기에 유용하지 않다.

6 사회 구조와 일탈 행동

[빠른 정답] ①

[자료 분석]

(가)는 차별 교제 이론, (나)는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 (다)는 낙인 이론이다.

[정답 풀이]

① 차별 교제 이론은 타인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일탈이 학습된다고 본다.

[오답 풀이]

② 일탈자의 부정적 자아가 형성되는 과정에 주목하는 이론은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이 아니라 낙인 이론이다.

③ 일탈에 대한 대책으로 새로운 사회 규범의 정립을 제시하는 이론은 낙인 이론이 아니라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이다.

④ 차별적 제재를 일탈의 원인으로 보는 이론은 차별 교제 이론이 아니라 낙인 이론이다.

⑤ 일탈에 대한 대책으로 정상 집단과의 교류 촉진을 제시하는 이론은 낙인 이론이 아니라 차별 교제 이론이다.

7 사회 구조와 일탈 행동

[빠른 정답] ① (ㄱ, ㄴ)

[자료 분석]

다음 글에 나타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은 사회 실재론이다.

[정답 풀이]

ㄱ. 개인은 사회에 의해 구조화된 행동을 한다고 보는 관점은 사회 실재론이다.

ㄴ. 사회는 개인의 외부에서 독자적으로 작동한다고 보는 관점은 사회 실재론이다.

[오답 풀이]

ㄷ. 개인의 자율적 의지에 의해 사회 현상이 형성된다고 보는 관점은 사회 실재론이 아니라 사회 명목론이다.

ㄹ. 사회는 개인의 이익 실현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는 관점은 사회 실재론이 아니라 사회 명목론이다.

[Eye Catch]

사회 실재론 vs 사회 명목론이 단일 제시문으로 출제되는 경우 제시문의 전체적인 흐름에 기반하여 결론이 무엇인지 파악하며 읽어야 한다. 이 제시문에서도 만약 '한 사회의 개인', '상호 작용'과 같이 초반부의 미시적인 부분에만 주목하며 읽었다면 사회 명목론으로 판단하게 될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바탕으로 제시문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인간은 언어적 상징이라는 감옥에 갇힌 죄수인 셈.'이라는 것을 파악했다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다.

8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태도와 연구 윤리

[빠른 정답] ②

[자료 분석]

갑은 연구 대상인 학생들에게 동의를 얻지 않았고, 을은 연구 대상자의 실명이 포함된 응답 자료를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정답 풀이]

② 을은 연구 대상자의 개인 정보(실명)를 유출하였다.

[오답 풀이]

① 갑은 수집된 자료를 임의로 조작하지 않았다.

③ 을은 연구 자료를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④ 갑은 연구 대상자의 사전 동의를 얻지 않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⑤ 갑과 을의 연구는 모두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ye Catch]

연구 윤리 문항을 풀 때에는, 자료에 제시된 연구의 절차에서 윤리적 문제가 있는 부분에 밑줄을 치면 선지를 보다 안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3/4번 선택지에서는 'A는 B와 달리 X이다.' 꼴의 선지가 출제되었는데, 해당 선지는 'A는 X이다.'라는 명제와 'B는 X가 아니다.'라는 명제가 합쳐진 선지이고, 두 명제가 모두 참이라면 참인 선지이고, 하나라도 거짓인 명제라면 거짓인 선지가 된다. 따라서 'A는 X이다.'의 참/거짓을 판단하기 어렵다면, 'B는 X가 아니다.'의 참/거짓을 먼저 판단하는 것이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이다.

9 다양한 사회 불평등 현상

[빠른 정답] ④

[자료 분석]

'한 사회에서 구성원들이 일반적으로 누리는 생활 수준에 필요한 소득이 부족한 상태'는 상대적 빈곤이다. 따라서 B는 상대적 빈곤, A는 절대적 빈곤이다. ㉠에는 절대적 빈곤의 의미가 들어가야 하며, (가)에는 상대적 빈곤(B)과 구분되는 절대적 빈곤(A)의 특징, (나)에는 절대적 빈곤(A)과 상대적 빈곤(B)의 공통적인 특징, (다)에는 절대적 빈곤(A)과 구분되는 상대적 빈곤(B)의 특징이 들어가야 한다.

[정답 풀이]

④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은 모두 우리나라에서는 객관적 기준에 의해 규정된다.

[오답 풀이]

- ① 절대적 빈곤(A)에 속하지 않는 가구도 상대적 빈곤(B)에 속할 수 있다.
- ② '개인이 주관적으로 빈곤하다고 인식하는 상태'는 절대적 빈곤이 아니라 주관적 빈곤의 의미이다.
- ③ 절대적 빈곤(A)과 상대적 빈곤(B)은 모두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 ⑤ 절대적 빈곤(A)과 상대적 빈곤(B)은 모두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할 수 있다.

[Eye Catch]

<자료 2>의 (가)와 (다)는 각각 B와 구분되는 A의 특징, A와 구분되는 B의 특징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10 다양한 사회 불평등 현상

[빠른 정답] ④

[자료 분석]

사회 보장 제도나 인구 부양비 문항처럼 표를 자세히 정리할 필요는 없었지만, 지표상 여성이 남성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고, 차별의 강도는 2010년 대비 2020년에 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풀이]

④ (다)에서 2010년 대비 2020년에 전체 고위 공직자 수 증가율은 50%이고(= 250/500) 남성 고위 공직자 수 증가율은 25%(= 100/400)이다.

[오답 풀이]

- ① (가)에 따르면 갑국에서 성별 가사 분담의 격차는 완화되었다.
- ② (가)에서 맞벌이 부부 중 여성의 1일 평균 가사 노동 시간 대비 맞벌이 부부 중 남성의 1일 평균 가사 노동 시간은 2010년에 1/3(= 60/180)이고, 2020년에 1/2(= 80/160)이다.
- ③ (나)에서 2010년 대비 2020년에 남성 정규직 월평균 임금 상승률은 약 16.7%(= 500/3000)이고, 여성 정규직 월평균 임금 상승률은 20%(= 500/2500)이다.
- ⑤ (다)는 경제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측면의 성 불평등 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에 가깝다.

[Eye Catch]

5번 선지가 시험장에서 당황스럽게 느껴졌을 수 있다. 이렇게 애매한 선지를 (나)와 (다)의 특성을 비교해서 풀 수 있는데,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5번 선지가 참이 되려면 (다)는 경제적 측면의 성 불평등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여야 하고('A는 X이다.'), (나)는 경제적 측면의 성 불평등 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가 아니어야 한다.('B는 X가 아니다.') 해당 조건을 만족하려면 적어도(필요조건) (다)가 (나)보다 경제적 측면의 성 불평등 양상을 파악하는 데 적합한 자료여야 하는데, '고위 공직자 수'가 '정규직 월평균 임금'보다 경제적 측면의 성 불평등 양상을 파악하는 데 적합한 자료는 아니기 때문에, 5번 선지는 확실한 오답 선지이다.

11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

[빠른 정답] ③

[자료 분석]

A는 관료제, B는 탈관료제이다.

[정답 풀이]

- ③ 관료제(B)는 탈관료제(A)에 비해 업무의 표준화와 세분화를 중시한다.

[오답 풀이]

- ① 관료제(B)는 탈관료제(A)에 비해 과업 수행 절차의 예측 가능성이 높다.
② 관료제(B)와 탈관료제(A) 모두 공식적 규약과 절차에 의해 구성원을 통제한다.
④ 탈관료제(A)는 관료제(B)와 달리 상향식 의사 결정 방식이 지배적이다.
⑤ 관료제(B)는 연공서열에 따른 보상을, 탈관료제(A)는 성과에 따른 보상을 중시한다.

12 문화 변동의 양상과 대응

[빠른 정답] ⑤

[자료 분석]

문화 변동의 내재적 요인에 해당하는 문화 변동의 요인은 발명과 발견이고,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 내는 문화 변동의 요인은 발명과 자극 전파이다.

따라서 D는 발명, B는 발견, A는 자극 전파이고, C는 직접 전파이다.

[정답 풀이]

- ⑤ 자극 전파(A), 발견(B), 직접 전파(C), 발명(D)은 모두 한 사회에 새로운 문화 요소를 추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오답 풀이]

- ① 난민으로 유입된 타국 사람들의 고유한 놀이를 자국 국민들이 배워 즐기게 된 사례는 자극 전파(A)가 아니라 직접 전파(C)에 해당한다.
② 자국의 전통 음료에 전통 식재료를 가미하여 새로운 음료를 만든 사례는 발견(B)이 아니라 자극 전파(A)에 해당한다.
③ 외국에서 유행하는 새로운 춤이 인터넷을 통해 자국으로 확산된 사례는 직접 전파(C)가 아니라 간접 전파에 해당한다.
④ 발명(D)으로 나타난 문화 요소가 직접 전파(C)로 인해 타국에서 발견(B)을 발생시킨 것은 자극 전파(A)로 볼 수 없다. 발견(B)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 내는 요인에 해당하지 않지만, 자극 전파(A)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요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Eye Catch]

4번 선지가 시험장에서 부담스럽게 다가왔겠지만, 실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있었다. 첫 번째는 판단하기 난감한 선지를 건너뛰는 방법으로, 뻘하고 익숙한 방법이겠지만 시험장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느냐, 적용하지 않느냐로 인해 문항의 성패가 달릴 수도 있다. 제대로 공부한 학생이라면 1~3번이 오답 선지라는 것은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고, 4번 선지를 건너뛰었다면 5번 선지가 정답이라는 것도 손쉽게 판단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선지의 핵심 부분인, 발견이 자극 전파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교과서적 개념 혹은 문항의 자료에 따르면, 발견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 내는 요인이 아니지만, 자극 전파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 내는 요인이기 때문에 어떤 발견도 자극 전파가 될 수 없다. 따라서 4번 선지는 오답 선지이다.

13 다양한 사회 불평등 현상

[빠른 정답] ③

[자료 분석]

A는 한국인, B는 재일 교포 2세, C는 혼혈인, D는 장애인, E는 동양인이자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은 사회적 소수자이다.

[정답 풀이]

③ C는 선천적 요인으로, D는 후천적 요인으로 인해 차별을 받았다.

[오답 풀이]

- ① A와 B는 모두 역차별을 받지 않았다.
- ② B와 C는 모두 선천적 요인으로 인해 차별을 받은 것이지만, 수적인 열세로 인해 차별을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④ E는 D와 달리 주류 집단과 구별되는 문화적 차이로 인해 차별을 받았다.
- ⑤ E와 A는 모두 국적이 주류 집단과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

[Eye Catch]

5개의 선지 모두 'A는 B와 달리 X이다.' 꼴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선지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은 8번 문항 Eye Catch에서 제시했던 것처럼, 선지를 'A는 X이다.'와 'B는 X가 아니다.'로 쪼갠 후에 각 명제의 정오를 판단하는 것이다.

14 사회·문화 현상의 이해

[빠른 정답] ②

[자료 분석]

갑의 관점은 기능론, 을의 관점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 병의 관점은 갈등론이다.

[정답 풀이]

② 기능론은 갈등론과 달리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활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오답 풀이]

- ① 개인의 행위가 상황에 대한 주관적 해석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고 보는 관점은 기능론이 아니라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다.
- ③ 집단 간 갈등을 사회 변동의 원동력으로 보는 관점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 아니라 갈등론이다.
- ④ 갈등론은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
- ⑤ 사회 구조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는 관점은 갈등론이 아니라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다.

15 사회 복지와 복지 제도

[빠른 정답] ⑤

[자료 분석]

(가)는 사회 보험인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이고, (나)는 공공 부조인 기초 연금 제도이다.

A 지역의 (나) 수급자 비율은 전체 지역의 수급자 비율보다 6%p 크고, B 지역의 (나) 수급자 비율은 전체 지역의 수급자 비율보다 2%p 작다. 따라서 A 지역과 B 지역의 인구비는 1 : 3이고, ㉠ = 10 + (10 - 6) × 3 = 22이다.

자료 두 번째 각주에 따르면, 70 - 10은 ㉡ - 10의 6배이고, 따라서 ㉡ - 10 = 10이고, ㉡ = 20이다.

㉢을 알면, 가중 평균의 원리를 이용하여 ㉢도 구할 수 있다. ㉢ = 20 - (26 - 20) ÷ 3 = 18이다.

A 지역의 인구를 100k명이라고 가정하고, A 지역과 B 지역의 인구비와 ㉠ ~ ㉢의 값을 바탕으로 제도별 수급자 인구를 지역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 명)

구분	A 지역	B 지역	전체 지역
사회 보험 수급자	26k	54k	80k
공공 부조 수급자	76k	204k	280k
중복 수급자	22k	18k	40k
총인구	100k	300k	400k

[정답 풀이]

⑤ 갑국 전체 지역에서 (가)와 (나) 중복 수급자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인구는 40k명이고,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수급자에게만 해당하는 65세 이상 인구도 80k - 40k = 40k이다.

[오답 풀이]

- ① ㉔(22)은 ㉓(18), ㉒(20)보다 크다.
- ②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에는 사회 보험과 공공 부조가 모두 해당한다. A 지역에서 사회 보험 또는 공공 부조의 65세 이상 인구 수급자 수는 $26k + 76k - 22k = 80k$ 이고, B 지역에서 사회 보험 또는 공공 부조의 65세 이상 인구 수급자 비율은 $54k + 204k - 18k = 240k$ 이다. 따라서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수급자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인구는 B 지역이 A 지역의 3배이다.
- ③ 사전 예방적 성격보다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는 공공 부조이다. A 지역에서 공공 부조만의 65세 이상 인구 수급자 수는 $76k - 22k = 54k$ 이고, B 지역에서 공공 부조만의 65세 이상 인구 수급자 비율은 $204k - 18k = 186k$ 이다. 따라서 사전 예방적 성격보다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수급자에만 해당하는 65세 이상 인구는 B 지역이 A 지역보다 많다.
- ④ 상호 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는 사회 보험이다. A 지역에서 사회 보험만의 65세 이상 인구 수급자 수는 $26k - 22k = 4k$ 이고, B 지역에서 사회 보험만의 65세 이상 인구 수급자 비율은 $54k - 18k = 36k$ 이다. 따라서 상호 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에만 해당하는 65세 이상 인구는 B 지역이 A 지역의 9배이다.

[Eye Catch]

자료를 제시하고 해석하는 방법은 기존 경향과 별반 다르지 않았으나, 선지에서 '금전적 지원 원칙'(2번)이나 '~에만 해당하는'(3, 4번), '중복 수급자에 해당하는'(5번)과 같은 표현을 통해 중복 수급자에 대한 계산을 집요하게 요구한다는 부분에서 특이점이 있다. 또한 공공 부조의 수급자 비율이 사회 보험의 수급자 비율보다 훨씬 높다는 점에서도 그동안의 현실 고증을 어느 정도 고려하던 출제와는 거리가 멀어졌다. 따라서 도표 문항에 제대로 대비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공부를 함에 있어 출제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제한하지 않고, 다양한 문항들을 폭넓게 접해볼 것을 권장하는 바이다.

16 현대 사회의 문화 양상

[빠른 정답] ⑤

[정답 풀이]

- ⑤ ㉔은 비물질 문화에 해당하고, ㉓은 물질문화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 ① ㉓에서 '문화'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② ㉒에는 문화의 변동성이 부각되어 있다.
- ③ ㉓은 정보 생산자와 정보 소비자 간 구분이 모호한 매체이다.
- ④ ㉔은 대중문화의 확산으로 문화의 획일화가 심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니다.

[Eye Catch]

문화의 이해와 현대 사회의 문화 양상이 결합된 문항이며, 이러한 문항은 하나의 단어에 대해서도 출제될 수 있는 선지가 다양하기 때문에(한 예로, ㉓ 짠테크 문화의 경우에는 넓은 의미의 문화이기도 하고, 하위 문화, 그 중에서 세대 문화이기도 하다.) 자료를 완벽하게 정리하고 선지를 푸는 것보다는, 자료와 선지를 오가면서 선지에서 요구하는 만큼만 자료를 해석하고 선지의 정오를 판단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17 문화의 이해

[빠른 정답] ③

[자료 분석]

문항 1에 따르면 A, C와 달리 B는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으므로, B는 문화 상대주의이다. 문항 2에 따르면, B, C와 달리 A는 문화의 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기여하는 관점이 아니므로, A는 문화 상대주의가 아니다. 따라서 A는 자문화 중심주의, B는 문화 상대주의, C는 문화 상대주의이다.

[정답 풀이]

- ③ 자문화 중심주의(A)는 문화 상대주의(C)와 달리 특정 문화를 기준으로 타문화를 평가한다.

[오답 풀이]

- ① 타문화를 수용하는 데 적극적인 태도는 자문화 중심주의(A)가 아니라 문화 상대주의(B)이다.
- ② 국수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 태도는 문화 상대주의(B)가 아니라 자문화 중심주의(A)이다.
- ④ 타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서 비롯된 태도는 자문화 중심주의(A)가 아니라 문화 상대주의(B)이다.
- ⑤ 자문화 중심주의(A)는 문화 상대주의(C)에 비해 타문화와 문화적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Eye Catch]

3번 문항과 마찬가지로, 참인 진술과 거짓인 진술을 섞어서 출제된 퍼즐 문항이다. 점수가 1점이면 참인 진술임을 의미하고, 점수가 0점이면 거짓인 진술임을 의미한다.

18 사회 이동과 사회 계층 구조

[빠른 정답] ②

[정답 풀이]

- ② B가 하층이고 C가 상층이라면, A는 중층이고 을국의 계층 구조는 모래시계형이고, 갑국의 계층 구조는 다이아몬드형이다.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는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보다 계층 양극화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오답 풀이]

- ① A가 상층이고 B가 중층이라면, C는 하층이고 병국의 계층 구조는 25 : 25 : 50이고(모래시계형도 아니고 피라미드형도 아니다.), 을국의 계층 구조는 다이아몬드형이다. 병국의 계층 구조는 하층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보다 사회 통합에 불리하다.
- ③ 갑국의 계층 구조가 모래시계형이라면, B는 중층이다. 이 경우 을국의 중층 비율은 50%로 을국 내에서 가장 크다.
- ④ 을국의 계층 구조가 피라미드형이라면, A는 상층, B는 하층, C는 중층이다. 이 경우 병국에서 상층 비율은 25%이고, 중층 비율은 50%이다.
- ⑤ 병국의 계층 구조가 다이아몬드형이고 B가 하층이라면, A는 상층이고 C는 중층이다. 이 경우 을국의 중층 비율은 40%이고, 갑국의 상층 비율은 50%이다.

[Eye Catch]

9월 평가원의 계층 이동 문항에서는, A~C가 어떤 계층인지 자료에서 제시하지 않고 대신 선지마다 서로 다른 케이스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기존보다 난이도를 높였다. 특히 '사회 통합에 유리한 정도', '계층 양극화로 인한 문제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비교가 1, 2번 선지에 출제되었으므로, 학생들은 계층 구조들의 특징을 이번 기회에 다시 복습하도록 하자.

19 사회 변동과 사회 운동

[빠른 정답] ⑤ (ㄷ, ㄹ)

[자료 분석]

- A는 아동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 운동이다.
- B는 조직적인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 운동이 아니다.
- C는 기후 위기 대처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 운동이다.
- D는 지속적인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 운동이 아니다.

[정답 풀이]

- ㄷ. C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구체적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사회 운동으로 볼 수 있다.
- ㄹ. D는 조직적이지 않은 군중이 일시적으로 모였다는 점에서, 사회 운동으로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 ㄱ. A는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였다고 볼 수는 있지만, 해당 이유 때문에 A를 사회 운동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 ㄴ. B는 사회 변화를 위해 계획적으로 진행되지도 않았고, 사회 운동으로 볼 수도 없다.

[Eye Catch]

발문에 '사회 운동 (가)~(다)에 대한 설명~과 같은 표현이 사용되지 않은 사회 운동 사례형 문항의 경우, 사회 운동인 사례와 사회 운동이 아닌 사례가 섞여서 출제되었다. 따라서 학생은 제시문을 읽을 때 어떤 사례는 사회 운동이고 어떤 사례는 사회 운동이 아닌지, 사회 운동인 사례는 사회 운동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사회 운동이 아닌 사례는 사회 운동이 아닌 이유가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체크하고 넘어가면 선지를 판단하기 수월할 것이다.

20 현대 사회의 변화와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

[빠른 정답] ④

[자료 분석]

t년에 부양 인구는 전체 인구의 절반이므로, t년 부양 인구는 t년 유소년 인구와 t년 노년 인구의 합과 같다. 따라서 t년 부양 인구는 1000만(750만 + 250만)명이다.

A 시나리오에서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는 모두 t년 대비 20% 증가하였으므로 A 시나리오 유소년 인구는 900만(750만 × 1.2)명이고, A 시나리오 노년 인구는 300만(250만 × 1.2)명이다. t+100년에도 부양 인구는 전체 인구의 절반이므로, A 시나리오 부양 인구는 A 시나리오 유소년 인구와 A 시나리오 노년 인구의 합과 같다. 따라서 A 시나리오 부양 인구는 1200만(900만 + 300만)명이다.

B 시나리오에서 유소년 인구는 t년 대비 20% 감소하였으므로 B 시나리오 유소년 인구는 600만(750만 × 0.8)명이고, B 시나리오에서 노년 인구는 t년 대비 140% 증가하였으므로 B 시나리오 노년 인구는 600만(250만 × 2.4)명이다. t+100년에도 부양 인구는 전체 인구의 절반이므로, B 시나리오 부양 인구는 B 시나리오 유소년 인구와 B 시나리오 노년 인구의 합과 같다. 따라서 B 시나리오 부양 인구는 1200만(600만 + 600만)명이다.

이를 바탕으로 시기별 인구비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만 명)

구분	현재(t년)	A 시나리오	B 시나리오
유소년 인구	750	900	600
부양 인구	1000	1200	1200
노년 인구	250	300	600
총인구	2000	2400	2400

[정답 풀이]

④ 전체 인구에서 노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B에서 25% ($600/2400 \times 100$)이고, A에서 12.5% ($300/2400 \times 100$)이다.

[오답 풀이]

① 노년 부양비는 A에서 25% ($300/1200 \times 100$)이고, 현재에도 25% ($250/1000 \times 100$)이다.

② 총부양비는 B에서 100% ($1200/1200 \times 100$)이고, 현재에도 100% ($1000/1000 \times 100$)이다.

③ 유소년 부양비는 A에서 75% ($900/1200 \times 100$)이고, B에서 50% ($600/1200 \times 100$)이다.

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유소년 인구 비율이 낮고 노년 인구 비율이 높은 사회일수록 부각된다. A의 유소년 인구 비율은 B보다 높고, A의 노년 인구 비율은 B보다 낮다. 따라서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A보다 B에서 더 부각된다.

[Eye Catch]

t+100년의 시나리오를 두가지로 나누어서 제시한 점이 낯설게 느껴졌을 수 있지만, 결국 인구 부양비의 전통적인 풀이 방식인 인구비 표를 채워 넣고, 그 표에 정리된 정보를 바탕으로 선지의 정오를 판단하는 풀이 방식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수험생은 앞으로도 낯선 형태의 자료가 제시되었을 때 새로운 풀이를 찾기보다는, 그동안의 기출에 적용할 수 있는 풀이 방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글쓴이 소개

김태주(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수험생 시절, 지나치게 개념적 사실에만 초점에 맞춰진 사회탐구 콘텐츠에 불만을 느끼고 실전에 도움이 되는 행동영역을 직접 개발하며 공부하였다. 그 결과 길었던 수험생활 동안 사회탐구에서만큼은 항상 최상위권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고, 대학생으로서는 실전적인 행동영역에 대해 가르치는 사회탐구 콘텐츠를 만들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 현재는 수험생 시절의 다짐을 이어가기 위해 학생들에게 좋은 사회·문화 콘텐츠를 공급하는 일을 업(業)으로 살아가고 있다.

포만한/수만휘/오르비 닉네임 : 사문단

인스타그램 ID : gift_eacher (사회·문화 무료 QnA 서비스 제공중)